

한국 가톨릭 병원협회의 미래 구상

맹 광 호

〈가톨릭의대 예방의학 교수〉

1. 머리 말

한국가톨릭병원협회가 발족된 것은 1967년 9월 22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가톨릭병원협회는 금년으로 창립 23년째를 맞게되는 셈입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든지 어느 기간동안의 활동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는 일은 대체로 창립되고 5년이나 10년등 일정한 간격을 정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창립 23년째를 맞는 지금 굳이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활동의 미래 구상을 하는 것이 무슨 별다른 뜻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지도 않겠지만 최근 우리 가톨릭 병원들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번 모임이야말로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뜻이 있다고 말할수가 있습니다.

즉, 지난해 7월을 계기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일이라든지 새로히 의료전달체계가 실시된 일, 그리고 지난해부터 심각한 국면을 보이기 시작한 병원 노사문제등을 확실히 우리 가톨릭 병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따라서 장차 어떻게 우리가 이 변화된 현실에 발전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회상황 변화때문에 지난 1년사 이 이미 몇몇 수도회가 수십년간 운영해오던 그들의 병원사업을 포기해버린 일을 바로 오늘의 주제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제에서는 이와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 가톨릭병원협회가 걸어온 길을 잠시 더듬어보고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 한국 가톨릭 병원협회의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가톨릭병의원들의 설립연대를 보면 한국동란을 겪고난 1950년대 초거나 그 뒤 한창 나라가 황폐화되고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던 시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즈음 한국에 진출한 외국 수도회나 국내교구 또는 수도 단체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기 위해 병의원을 설립해서 거의 무료로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교회병원들의 경우, 지금은 선교를 목적으로 한 하나의 수단으로 의료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의 가톨릭교회 병원들은 밀려드는 무료 환자진료를 통한 보다 현실적인 사랑의 실천을 행동으로 먼저 보이는 일로 시작을 한 셈입니다. 그당시 물론 교회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엄청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기쁨과 보람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교회병원이 이 자선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가톨릭병원협회가 탄생되는 1960년대 후반부에도 물론 우리 사회는 가난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따라서 가톨릭병원들은 역시 많은 무

료 환자 진료료를 계속해야 했지만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 보면 1950년대와는 상황이 적잖이 바뀌어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순전히 외국 원조로만 운영되던 대부분 병원들이 차차 자립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는 단지 교회병원이 밀려드는 환자만을 치료해주는 차원을 넘어 좀더 구체적인 복음전파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야한다는 자각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가톨릭 병원들은 차차 경영방식 개선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동시에 교회의료의 올바른 정신구현을 위한 사업구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톨릭병원들의 이같은 인식변화와 사명 의식은 바로 이즈음에 탄생된 한국가톨릭병원협회의 설립목적에 너무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회칙 제3조에 명시된 협회 목적을 보면, 첫째로 가톨릭병원협회는 의료사업을 통하여 사회와 밀접한 접촉을 가짐으로서 교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둘째 가톨릭정신에 입각하여 의료인의 정신함양을 도모하고, 셋째 의료사업에 수반되는 인적 자원에 관하여 회원 상호간에 있어서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학술적 및 기술적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며, 넷째 의료기재, 약품, 의료시설, 기타 모든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를 도모하고, 다섯째 회원기관의 경영을 연구 발전시키는 한편, 여섯째 한국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협동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권장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둘어해보면 그동안 우리 가톨릭병원협회로서는 물론 회원병원들 자체도 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써왔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협회 산하 병원들 모두가 설립당시에 비해 그 규모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과의 접촉기회를 넓혀왔을 뿐 아니라 무려 43차에 걸친 정기적 세미나 모임을 통해 가톨릭이념 구현을 위한 다짐과 스스로의 자질 향상에도 노력해 왔으며 인적교류나 병원 종사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원 병원간의 학술 및 기술적 발전 도모에도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학기술의 발달과 사회가치 변천에 따른 일부 인간생명 경시풍조 형태들, 예컨대, 무분별하게 불임시술이 시행되고 인공유산이 합법화되는 현실을 걱정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일이라든지, 건전한 자연가족계획 보급에 앞장선일,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무려 1700여명 영세민 실명자들에게 무료 개안수술을 실시한 일을 우리 협회가 주도한일 등은 국민복지와 가톨릭정신 구현사업으로 결코 과소 평가될 일이 아닌것입니다.

또한 최근 2-3년 동안 남미 에콰도르 해외선교지를 돕기위해 가톨릭 의사협회와 함께 의약품과 의료기기들을 모으고 규모는 작지만 실제로 의료진을 파견해서 현지주민에 대한 무료진료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참여해온 일을 이제 3세기를 맞는 한국교회 역사적 선교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자부심마저 갖게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우리의 활동이 결코 만족스러운 정도였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특히 협회차원에서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회원기관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의료자원면에서 충분히 도울수 없었다든지 최근들어 전국민 의료보험실시 이후 각 회원기관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노사간의 분쟁 해결에 협회가 결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자문역할을 적절히 해왔다고 볼수 없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따지고보면 협회의 관심부족이거나 의지부족에서라기보다 처음부터 그럴수 밖에 없었던 협회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계속해서 협회활동을 발전, 유지시킬만한 전문연구기구나 인력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일상적 정규사업이나 그때 그때 발생하는 한 두가지 협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활동밖에는 달리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의 일입니다. 환자관리를 위한 최첨단 진단, 치료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의사-환자 관계의 변화, 의료비 지불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도입에 따른 정부의 간섭증대, 건

강권 확보에 관한 시민의식고조, 그리고 현대세계에 대한 교회기능의 확대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 가톨릭 병원들이 스스로 긍정적인 대처를 해 나가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톨릭병원들이 의료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의료사업이 그리스도의 실천적 복음선포의 가장 가치있는 방법이었다는 것과 이 일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본받기를 명하신 일이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오늘날 많은 경우의 의료가 갖는 비 그리스도적 요소, 예컨대 반생명력 의학기술의 범람과 비인격적 치료 행위에 대한 우리 가톨릭 의료의 역할은 점점 더 증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생명존중과 사회정의의 의료안에 실천하는 교회적 사명과 전인적 치료의 모범을 보여야하는 우리 가톨릭의료의 책임은 더욱더 커져야하기 때문입니다.

3. 한국 가톨릭 협회의 미래구상

어느 면으로 보나 오늘날 우리사회는 가톨릭 병원들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해 가는 데는 결코 좋은 여건을 제공해주는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런 여건은 앞으로도 좀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로부터의 역할기대의 폭을 더욱더 넓혀가야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가톨릭 병원협회가 제정해서 채택한 이념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의료기관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점차 다른 일반 의료기관들에서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일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톨릭병원의 이념구현은 일차적으로 병원 스스로도 별도의 조직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일이지만 이 일을 위한 협회의 역할이 다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협회 내지는 회원병원의 이념

구현을 구현하는 일이 점차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교회성을 들어내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각종 경영기법이나 원목활동, 그리고 대정부기관이나 사회에 대한 의료사회정의 실천요구등이 모두 전문적인 연구와 조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회원기관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로서의 협회라면 가톨릭 병원협회는 이제 모든 가톨릭 의료기관의 공동목표인 동시에 이익이랄 수 있는 가톨릭이념 구현과 건강한 병원경영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주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가톨릭 병원협회는 이제까지의 정례적 학술행사나 응급조치적 사업수행기능에서 한발 앞선 단체로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을 위해서는, 이상적으로 가령 미국의 가톨릭 보건협회(Catholic Health Association, CHA)와 같은 조직과 기능을 가지는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일은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 회원병원들에게 돌아갈 경제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런 규모의 단체에 몸담아 전문적 연구나 교육활동을 할만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역시 우리 가톨릭 병원협회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가톨릭중앙의료원안에 가톨릭 병원협회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연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에 가톨릭병원 의료연구소 같은것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국내 유일의 가톨릭 의학교육기관과 여러개의 병원을 부속기관으로 가진 조직체로써 가톨릭 이념에 따른 교육과 연구 및 진료를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의견상 거대한 의료기관일 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의학교육이나 의료활동 전반에 관한한 한국 가톨릭교회를 대신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을 통해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앞서서 해야할 뿐 아니라 국내 다른 가톨릭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을 지도 육성해야하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사실상 그동안 가톨릭 병원협회나 가톨릭의사협회 활동에서 이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도 바로 이런 인식이 바탕이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톨릭 병원협회나 의사협회의 새로운 발전모색이 필요한 시기에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전문연구 기구를 가지고 이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것이 바람직한것은 두말한나위도 없지만 가톨릭중앙의료원 자체로도 이제 이런 연구기관의 설립은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들어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인력 및 경영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을뿐 아니라 사회여건 또한 많이 변화됨으로써 장차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에 새로운 철학과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원경영 측면에서의 제도 및 환경변화, 그리고 의학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 및 생명윤리의 문제등에 대처할만한 연구와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각급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또한 절실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변화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현명하게 대처해 가는것은 물론 교회를 대신하여 국내 모든 가톨릭 의료인 및 의료기관들이 좀더 가톨릭 이념에 맞는 의료활동을 하도록 지도 육성하는 한편 해외 선교적 차원에서 아시아지역 및 서구 여러나라 가톨릭 의료시설들과의 국제모임도 추진해서 실시하는 등 보다 의욕적 자세로 이에 관한 연구와 교육활동을 펴나가는 일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가톨릭 중앙의료원내에 이와같은 가톨릭병원 의료연구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연구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적은 규모로라도 시작

이 되면 교회의료 전반에 대한 문헌연구나 정보 교환, 그리고 병원관리에 관한 자체 및 외부 가톨릭 의료기관들로 부터의 용역연구도 실시하고 각급 가톨릭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단기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맺는 말

지난 몇년사이 가톨릭병원 운영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해오신 분들은 어려운 재정적 병원경영 문제와 상상도 못했던 노사분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런 좌절과 실망은 단지 의료의 사회화라든지 달라진 노사간의 관계 변화와 같이 다분히 외부상황 변화에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면 당면한 그런 상황변화에 대해서 그동안 미리미리 대처해오지 못한 우리 가톨릭병원 경영자들의 경영미숙과 지식부족에도 적잖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톨릭의료의 역할과 기능이 한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일을 위해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경영철학과 지식을 쌓는 일에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가톨릭병원협회는 전국의 가톨릭 병의원들이 건강하게 이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며 따라서 협회 자체로서 보다 새로운 전략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좀더 이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령 가톨릭병원 의료연구소 설치등을 통한 구체적인 연구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